

## 한국BASF, 그린홈 솔루션 세미나 개최

한국BASF(대표 조진욱)가 친환경 고효율 그린홈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

BASF는 10월19일 오후 1시부터 <친환경 고효율 그린홈 건설을 위한 혁신적 솔루션>을 주제로 한 건설기술 심포지엄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.

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건설기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주요의제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물의 요건과 전략을 비롯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정책과 건설기술 트렌드 저탄소 그린홈 주택건설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 등이 논의된다.

BASF는 단열재, 흡음재, 고효율 마감재 등 그린홈 건설을 위한 혁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을 선보이는 한편, 국내는 물론 홍콩 등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고기능 단열기술 및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사례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.

조진욱 한국BASF 회장은 “지구온난화와 자원고갈에 따른 친환경 고효율 건설기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자리가 될 것”이라며 “BASF는 환경을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에 더욱 앞장설 것”이라고 밝혔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10/19>